제37호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평협소식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번지 가톨릭회관 510호 Tel. 02-777-2013 • 757-7851 Fax. 02-778-7427
http://www.clak.or.kr E-mail : clak@catholic.or.kr
발행일 : 2012. 6. 25 발행인 : 최홍준

싣는 순서

-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3

- 교구별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5
  - |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8
  - |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9
  - |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10
  - |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10
  - |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11
  - |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14

- 한국평협 회원 단체
  - | 마리아사업회 15
  - | 한국가톨릭 간호사협회 16
  - | 한국가톨릭 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 17
  - | 한국가톨릭 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18
  - | 한국가톨릭 의사협회 19
  - | 레지오 마리애 광주 세나뚜스 19
  - |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 20

- 평협회장 단상
  - |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대주교 착좌식 축사 22
  - | 정진석 추기경님을 위한 송별사 23

알림

- 제3차 한국평협 상임위원회의가 9월 7~8일 수원교구 아론의 집에서 개최됩니다.

한국평협 아프리카 평신도대회 지원키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최홍준, 담당사제 민병덕)는 오는 9월 4일부터 열리는 아프리카 평신도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모금과 기도를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아프리카대륙 중서부에 위치한 카메룬 야운데에서 열릴 이번 대회는 '오늘날 아프리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 되기'라는 주제로 바티칸 평신도평의회가 주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아프리카 대륙이 당면한 문제들과 새로운 복음화에 관한 문제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국평협이 시복·시성 기도운동의 일환으로 작년 말 바티칸 시성성과 평신도평의회를 방문했을 때 평신도평의회 의장인 스타니스와프 리우코 추기경은 "지난 2010년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평신도대회는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대성공 이었다"고 전제하고 "이를 계기로 아프리카 평신도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화답해 한국평협은 아프리카 평신도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연대의식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이를 구체화하고자 한국평협은 지난 3월 제주에서 열린 상임위원회 때부터 지원 방법을 논의하여 왔고, 최근 들어 구체적인 지원방법을 확정했다.

한국평협은 각 교구 평협을 통해 아프리카 평신도대회의 개최 소식을 전 신자들에게 알리고, 자발적인 모금 활동을 벌여 성금을 바티칸 평신도평의회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원조 받던 교회에서 원조하는 교회로 변한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이웃 교회에 대한 형제애를 명실 공히 실천하기 위해 일반 신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후원을 유도하기 위해 모금계좌도 개설한다.

아래 계좌를 통해 아프리카 평신도대회 후원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도로도 대회의 성공을 후원할 수 있다.

▶ 문의 :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약칭:한국평협) 사무국 ☎(02)777-2013, E-mail: clak@catholic.or.kr

▶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301-926108 예금주: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협

▶ 참고사이트 : 바티칸 평신도평의회(www.laici.va)

제6회 우리 성가 작곡 공모 수상자 발표

한국평협은 '제6회 우리 성가 작곡 공모'를 통해 5작품을 선정해 오는 7월 18일 수상작 연주미사를 봉헌하고 시상식을 갖는다.

이번 공모에서는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과 장려상 2편을 선정했는데 수상작은 다음과 같다. ▲최우수상 신사빈(마르티노.의정부 중산성당) '주님 저희와 함께' ▲우수상 이철수(베네딕도.수원 성요셉성당) '화해와 사랑의 미사', 김세은(라파엘라.서울대치동성당) '기다림' ▲장려상 김길범(아우구스티노.서울 성산동성당) '주님 저희와 함께', 이철웅(프란치스코.서울 세검정성당) '주님을 따르리'.

이번 작곡 공모는 한국평협이 지난해 공모한 제6회 우리 성가 노랫말 심사에서 선정된 노랫말을 대상으로 해 이루어졌으며, 시상식은 오는 7월 18일 7시, 명동대성당에서 수상작 연주 미사와 함께 열리며, 이번에 뽑힌 곡들은 오는 11월 12일 2012년 평신도주일 기념 제8회 서울대교구 성가합창제에서도 연주된다.

한국평협이 "우리 정서에 맞는 아름답고 친근한 성가를 만들어 신자들이 하느님과 더욱 일치토록 함으로써 전례를 토착화하고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한 작곡 공모에는 총 29명이 응모했다.

‘하느님의 종’ 시복·시성을 위한

제주 도보성지순례

2012.03.16 ~ 18

한국평협은 제주교구 6개 성지를 순례하는 도보순례의 여정을 신자들과 함께했다. 지난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2박3일 동안 열린 제주 도보성지순례는 2011년부터 한국평협이 벌이고 있는 ‘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복·시성을 위한 기도운동의 일환이다. 한국평협은 지난해 11월 전국 27개 성지를 순례한 데 이어 지난해에 제외되었던 제주교구의 성지를 순례함으로써 이 땅의 모든 하느님 백성들이 우리 신앙선조들의 삶을 되새기고, 그분들의 삶을 현세에 투영하여 우리 모두가 ‘흰색 순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더 하기 위한 취지로 이번 순례를 마련했다.

첫 날 제주 주교좌 중앙동성당에서 집결한 150여 명의 순례자들은 한국평협의 상임위원들과 서울대교구에서 모집한 일반 신자들로 구성됐는데 제주공항에 갑자기 불어온 돌풍으로 인해 여러 대의 비행기가 회항하는 등 출발이 순조롭지 않았다. 따라서 우선 도착한 순례자들만으로 순례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으나 다행히 대부분의 인원이 몇 시간 후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김대건 신부님이 라파엘호를 타고 풍랑 속에서 제주에 표착하셨던 체험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순례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날 개막미사를 주례한 제주교구장 강우일 주교는 “비록 ‘하느님의 종’ 125위가 아직 시복되지는 않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분들에게 이미 충분한 상을 주었으며, 그분들의 시복과 시성을 바라는 기도는 바로 그분들의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을 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순례가 오늘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하느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묵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첫 날의 일정은 날씨로 인해 계획과 달리 관덕정과 4·3 평화공원만 순례하는 것으로 마쳤으며, 숙소인 이시돌 피정의 집에서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가 주최하는 연구발표회를 가졌다. 연구발표회는 바티칸 평신도평의회에서 출판된 두 권의 자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과 ‘쇄신의 여정에 있는 새로운 본당’의 내용을 연구한 것으로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김남희 위원과 오용석 위원이 각각 발표를 맡았다. 발표를 앞서 주최 측인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위원장 염수정 주교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발견할 수 있다”며 “그리스도와의 친교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창성당에서 미사로 시작한 둘째 날 순례는 용수성지에서 출발해 절부암과 생이기정 바당길, 당산봉, 자구내포구, 수월봉까지의 올레 12코스 약 11㎞의 도보구간과 대정성지, 강정 중덕해안을 방문하는 여정으로 진행됐다.

이날 미사를 주례한 허승조 신창성당 주임 신부는 “성지순례는 길 위에 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라며 순례단을 환영했다. 순례단은 성 김대건 신부가 중국 상해항을 출발하여 귀국하다가 표착한 곳인 용수성지에 복원해 놓은 라파엘호에 오르며 성인의 삶을 묵상한 후, 묵주기도를 하며 제주올레길 가운데에서도 7코스와 함께 가장 아름다운 길로 꼽히는 올레 12코스를 걸었다. 이후 황사영의 아내인 정난주 마리아의 묘인 대정성지를 순례한 뒤 강정포구에 도착한 순례단은 찬성과 반대로 갈라져 공동체가 파괴된 가운데 고통 받고 있는 강정 주민들의 상황을 가까이서 목격할 수 있었고,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평화의 기도를 함께 바침으로써 둘째 날의 순례를 마쳤다.

순례 후 저녁에는 숙소인 성 이시돌 피정의 집에서 모든 순례자들이 친교 시간을 통해 서로의 체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한국평협의 임원들과 일반 순례자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자리가 됐다.

성 이시돌 피정의 집 이사장 이어돈 신부(성골롬반외방선교회)의 미사로 시작한 마지막 날 여정은 새미 은총의 동산에서 시작됐다. 1950년대 후반 가난한 제주 농민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성이시돌농촌산업개발 협회 안에 세워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복음 테마 공원인 새미 은총의 동산에서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친 순례단은 1901년 신축교안 때 희생된 무명 순교자들이 묻혀있는 황사평 성지에 모여 우리 신앙선조들을 기리는 기도를 바친 후 조천에 있는 만세동산으로 이동해 도보로 올레 19코스의 일부를 따라 7㎞ 정도를 걸어 이번 도보성지순례의 종착점인 김기량 순교현양비 앞에 도착했다. 시복 청원 중인 ‘하느님의 종’ 가운데 유일한 제주 출신 순교자인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의 순교현양비 앞에서 모든 순례자들은 사흘 동안의 순례에 대해 소감을 나누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대장정을 마쳤다.

이번 순례에 수원교구에서 아내와 딸과 함께 참가한 이건국 형제는 “바람에 심하게 흔들리는 비행기 안에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한다고 묵상했다”며 “순례는 빨리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걸었던 길을 따라 걷는 것임을 깨달았다”고 말했고, 총평에서 최홍준 회장은 “라파엘호를 보면서 김대건 신부님이 서품을 받고 어떻게 그런 작은 배로 요황의 바다를 건너서 이 땅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이번 사순시기에 이런 좋은 순례를 할 수 있도록 안배하신 하느님께 감사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문덕영 제주평협 회장은 “폭삭 속았수다(수고 많으셨다)”는 제주 사투리로 인사를 하며 “준비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순례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는 말로 대미를 장식했다.

한국평협은 ‘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순교자 123위,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복·시성을 위해 ‘순교자 시복 시성 기도’ 바치기와 묵주기도 바치기, 성지 순례하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도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전국 성지순례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서울평협 제19대 임원 출범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최홍준, 담당사제 민병덕)는 지난 4월 28일 오전 교구청 주교관 소성당에서 제19대 회장단 출범을 기념하는 미사를 봉헌하고,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마음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이날 회장단에게 인준증을 수여한 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은 평협담당 민병덕 신부, 교구장 비서인 조영관 신부와 공동집전한 미사에서 강론을 통해 "50년 전 시작한 우리 교구가 겨자씨의 체험을 하고 있다"며 "겨자씨의 체험은 단지 비유가 아니라 은총을 체험 한 것"이라고 강조한 뒤 "높은 냉담률과 해체되고 있는 가정을 위해 평협이 특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정진석 추기경은 서울평협의 회장과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 사회사도직연구소장에게 인준증을 수여한 뒤 추기경 임명 당시 교황님의 강론을 인용해 "교황님께서 추기경 서임 때마다 절대 빠뜨리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옷이 피다. 추기경의 옷 색깔은 동맥의 피, 주교의 옷 색깔은 정맥의 피를 상징하며, 이는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아닌 순교의 자리임을 의미한다'는 말씀이며,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 사랑을 실천하자"고 격려했다.

미사 후에는 최홍준 회장이 제19대 임원회를 구성하는 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올해는 특별히 교황님께서 임명하신 '신앙의 해'가 시작되게 된다"면서 "교구장님 말씀에 따라 죽을 각오로 진리를 전하고, 신앙의 해를 맞아 신앙을 북돋워주는 계기를 만들어 주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자"고 강조했다.

서울평협은 기존 15개 위원회를 4개 위원회와 시복·시성 특별위원회 체제로 단순화하고, 각 위원회 안에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 유연하게 분과를 개설하거나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새로운 복음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진영을 갖추었다. 특히 바티칸 평신도평의회의 모범과 시대적 요청에 따라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큰 관심을 두고 참여하고 있는 스포츠분야의 복음화를 위해 스포츠분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새로워진 '공의회학교'의 열정 넘치는 신자들

서울평협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막 50주년을 맞아 5년간 운영해왔던 '평신도 학교 공의회과정'을 '공의회학교'로 개편하고 3월 19일 개강했다.

두 학기 각 15주씩 전체 30주로 진행됐던 1년 과정을 14주로 개편함에 따라 교재의 내용도 수정 보완됐다. 이번 공의회학교가 14주로 개편된 것은 30주 과정을 수료한 신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좀 더 많은 신자들에게 수강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

김성태 신부의 공의회 역사에 관한 첫 번째 강의에서는 가톨릭회관 3층 강당을 가득 메운 320여 명의 신자들이 시종일관 열띤 태도로 수강했다.

서울평협은 이번 공의회학교를 진행하면서 자리가 부족하여 함께하지 못한 신자들을 위해 하반기에도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12 생명대행진 첨석

서울평협은 6월 9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2012 전국 생명대회'에 임원진과 가톨릭여성연합회 등 회원단체의 장 등을 포함한 회원 150여 명이 참가했다. 이날 행사는 프로라이프 연합회가 주최·주관하고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가톨릭중앙의료원, (재)한마음한몸운동본부, 꽃동네가 후원하는 행사로 우리 사회에 낙태근절과 생명존중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전 9시 식전행사로 생명선언문이 낭독됐고, 본 행사로 서울광장에서 종로, 청계천, 을지로, 서울광장에 이르는 2.8㎞의 거리를 약 1시간 동안 행진하며 가두 캠페인을 벌였다.

단체 소식

<가톨릭 경제인회>

2012 이주근로자 위안잔치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주근로자 위안잔치' 행사가 부활절인 4월 8일 오전 11시 서울 혜화동 동성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열렸다.

필리핀, 베트남, 중국, 남미, 몽골 등에서 온 이주근로자 20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염수정 대주교(서울대교구장)와 경제인회 담당사제인 조학문 신부(서울대교구 관리국장),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장경민 신부 등 각 사제단의 공동집전으로 봉헌된 1부 '부활 대축일 미사'를 시작으로 2부 '선물 전달식', 3부 '음식 나눔'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미사는 한국어와 영어 동시통역으로 진행됐으며 이주민들은 각국 공동체별로 독서와 보편지향기도, 성가 등을 나눠 맡아 그들의 언어로 전례를 꾸며 보다 뜻 깊은 부활미사를 봉헌했다. 이날 미사를 주례한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대주교는 강론을 통해 "여러분 각자는 다양한 문화의 전달자이자 모국의 좋은 지적 자산을 이 땅에 전파하는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민의 삶에서 이주민들이 긍정적인 실천의 영역을 살피고 실행에 옮기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2부 선물전달식에서 가톨릭경제인회 유영희 회장은 이주민 대표로 노동사목위원회 허윤진 신부(이주사목 대표)에게 생필품으로 꾸며진 부활선물을 전달하였고, 이주근로자무료진료소 『라파엘클리닉』(김전 라파엘클리닉 인터내셔널 이사장)에 후원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이주민을 위한 부활선물은 문화체육관광부, 우리은행 등의 지원을 받아 가톨릭경제인회에서 마련했다.

미사 후에는 운동장에서 각 나라 공동체와 서울대교구 가톨릭여성연합회(회장 박은영)가 준비한 음식을 나누었고, 꾸르실료 러브클럽팝스오케스트라(CLCPO, 회장 윤대인)가 잔치 분위기를 흥겹게 이끌며 부활의 기쁨을 나눴다.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금남공소 생명과 사랑 나눔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김홍거, 담당사제 임기선)는 3월 25일(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금남공소(주임 나기순 신부)에서 '한생명 운동'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배선량(가스발) 평협 생명분과장은 평협이 벌이고 있는 한생명 운동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그중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관해 짧게 강의했다. 이어서 한생명 운동 홍보 동영상을 신자들에게 보여줬다.

나기순 금남공소 주임신부는 "본인은 헌혈을 하고 싶어도 이젠 할 수 없지만 사순기간에 우리 신자들이 뜻 깊은 일 하나씩 하자"며 "죽은 육신을 쓸 데가 있다고 하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전 신자가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하면 좋겠다"며 한생명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자 수가 100명 남짓한 금남공소에서 당일 40여 명의 기증희망자가 신청서를 작성했다. 한 학생은 헌혈증 2장을 기증했다.

나 신부는 "오늘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장기기증희망등록을 받겠다"며 "금남공소의 한생명운동은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사랑이 가득한 금남공소 신자들과 신부님 덕분에 갑자기 추워진 날씨와 찬바람도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거룩한 희생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었다.

부여고 사랑 실천 한생명

대전평협 한생명운동본부(담당 임기선 신부)는 4월 20일(금) 오후 3시 한 시간 동안 부여고등학교에서 '생명 존중과 사랑 나누기 실천 운동'이란 주제로 한생명 운동 홍보 강의를 하였다.

배선량(가스발) 생명분과장은 부여고등학교 교직원과 1~2학년생 450명 대상으로 장기기증에 관한 강의를 하고 각막기증 실천사례를 들려주며 장기기증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부여고 보건담당 교사는 "우리 아이들이 헌혈은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장기 기증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잘 모르고 있어 이번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생명 나눔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실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안동부지구 한생명운동

대전평협은 4월 29일(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천안동부지구 신부동성당(주임 이정업 신부)에서 '한생명 운동' 행사를 가졌다.

천안동부지구 내 8개 본당 신자들이 헌혈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신청을 통하여 생명 존중과 사랑 나눔을 실천한 뜻 깊은 행사였다.

신부동성당 이정업 주임 신부는 미사강론을 통하여 "우리가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헌혈과 장기기증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이를 실천하는 것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부동성당 사목총무 김기헌 마티아 부부는 헌혈에 동참하며 "고 김수환 추기경님의 뜻을 받들고 싶어 행사에 참여했

다. 이런 분위기가 사회 전반으로 퍼지고, 신자들이 한생명 운동에 동참하여 생명을 나누는 좋은 기회를 갖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에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감격스러워했다.

헌혈증 지원

대전평협 한생명운동본부는 2012년 5월 21일 오후 3시 대전평협 사무국에서 김홍거 평협 회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생명분과장, 홍보분과장)들이 함께한 가운데 헌혈증 지원 행사를 가졌다.

2009년부터 대전평협이 한생명운동(헌혈·장기기증 희망등록)을 벌이면서 기증을 받아온 헌혈증을 필요한 환우들에게 지원하기로 결의하여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성동본당 교우와 대전평화방송 교우에게 전달하는 행사였다.

헌혈증을 지원 받은 대전평화방송 루포 형제는 "어머니의 병환을 호전시키는 데 헌혈증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헌혈증을 기증해주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2012년 성모의 밤 평협주관으로 열려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김종해, 담당사제 김영호)가 주관하는 성모의 밤 미사가 2012년 5월 5일 (토) 7시 30분 성모당에서 봉헌됐다.

이날 미사는 조환길 대주교가 주례했고 박석재 사무처장 신부와 김영호 사목국장 신부, 주국진 비서 신부가 공동집전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여러 단체에서 모두 500~600명이 참여했다. 이날 미사 성가 봉헌은 가톨릭여성합창단이 했는데 맑은 목소리와 함께 바람도 선선하게 불어 성모님께 봉헌하는 미사 분위기가 한결 감미로웠다.

제37회 교구장기 교회 및 직장 테니스대회 개최

2012년 5월 27일(일) 오후 2시, 대구가톨릭대학교 효성캠퍼스 테니스장에서 제37회 교구장기 교회 및 직장 테니스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대회는 개인전 경기가 열렸고 28일(월) 오전 9시에 개막식과 그 후 단체전이 열렸다.

개인전에 참가한 팀은 여성 7팀, 남성청년 7팀, 장년 6팀, 실버 5팀, 부부 11팀이었다.

우승팀으로는 여성은 욱수성당B팀, 남성청년은 하양성당A팀, 남성장년은 욱수성당A팀. 남성실버는 김천황금성당팀, 부부는 하양성당팀이 차지했다.

단체전은 교회대항 A그룹이 9팀, B그룹이 12팀, 직장대항

이 12팀 참가했다. 단체전 우승은 교회대항 A그룹은 하양성당팀, B그룹은 욱수성당A팀이 차지했고 직장대항은 대구정신병원팀이 우승했다.

날씨가 시합을 하기에 아주 덥지도 않아서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이 기분 좋게 경기를 치를 수 있었다.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제169차 상임위원회 1박2일 피정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하창식, 담당주교 손삼석 주교)는 지난 5월 19일(토)~20일(일) 밀양시 삼랑진읍 용전동 산 102번지 순교자 김범우 토마스 기념 묘소에 자리한 성모동굴성당에서 총대리 손삼석(요셉) 주교와 하창식(프란치스코) 회장 이하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69차 상임위원회 겸 1박2일 피정을 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오후 5시 1층 자그마한 레지오실에서 '새 신자 초대와 성모동굴성당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이후 한건(도미니꼬) 신부가 '103위 성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주제로 열띤 특강을 했다. 오후 7시 손삼석 주교와 한건(도미니꼬) 신부, 부산평협 상임위원들은 조촐하나마 은혜로운 성모의 밤 행사를 가졌다.

다음날 자연 상태의 성모동굴성당에서 김범우 순교정신을 묵상하며 바친 새벽기도는 일상에서 탈피하여 주님과 대화하기에 더할 수 없이 좋은 피정이었다.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2012년 춘계 평신도지도자 연수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김황성, 담당사제 이형수 몬시뇰)는 4월 29일 양덕동성당 교육관에서 '2012년 춘계 평신도지도자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제3회 책 읽는 그리스도인 운동'의 선포와 '독후감 쓰기 추천도서 발표회'로 시작했다. 독후감 쓰기 공모전은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되며, 시상은 교구 평신도대회에서 할 예정이다. 이어서 '제2차 바티칸공의회 50주년과 평신도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이진수 신부(스테파노,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의 특강이 있었다. 참석자들은 특강을 통해 제2차 공의회 문헌에 따른 평신도의 이념을 정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진

해 웅천왜성의 성역화를 위해 노력해온 평협은 웅천왜성과 한국천주교의 역사를 다룬 KBS 역사스페셜 '빈센트 카운은 왜 화형을 당했나?' 편을 시청하고 웅천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성역화를 위해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이형수 몬시뇰(블라시오, 총대리)은 '책 읽는 그리스도인' 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과 '신앙의 해'를 맞아 가톨릭교회 교리서를 공부하고 한국 교회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신앙을 바로 알아 신앙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 달라고 당부했다.

교구지구 및 지역회장 연석회의 개최

6월 18일 오후 7시, 마산M호텔에서 마산평협 담당사제인 이형수(블라시오) 몬시뇰과 마산평협 김황성(바오로)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교구 지구 및 지역 회장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가 열렸다.

이날 모임은 평협의 여러 현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구와 지역별로 임명된 회장들이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평협의 사업을 각 본당에까지 전파하기로 다짐하는 자리였다.

특히 이날 평협은 당면 사업인 '책 읽는 그리스도인'(좋은 책 읽기와 독후감 쓰기) 사업과 한국평협 활동인 '하느님의 종 순교자 124위와 증거자 최양업 신부 시성·시복을 위한 기도운동'의 동참 방안 등을 소개한 후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2/4분기 평협의 활동 일정과 교구 연도대회 개최 소식을 알리고 일선 본당에서의 동참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산교구는 4개 지구와 지구별 12개 지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지구 및 지역 회장을 임명하여 효율적인 평협 활동을 도모하고 있다.

교구 원로사목자 초대 '은혜의 날'

마산평협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버이날을 기억하면서 사목현장에서 은퇴하신 교구 내 원로 사목자들을 초대하여 친교와 나눔의 시간인 '은혜의 날'을 개최했다.

평협은 지난 5월 29일(화) 원로 사목자들을 초대하여 오찬을 겸한 친교행사로서, 교구 발전을 위하여 평생을 하느님께 봉헌하신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교구 평신도사도직운동의 보고를 겸한 '은혜의 날'을 통하여 따뜻한 사제지간의 정을 체험하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는 제3대 교구장이신 박정일 주교를 비롯하여 7명의 원로 사목자와 평협 담당사제이신 이형수 총대리 몬시뇰 그리고 김황성(바오로) 평협 총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이 참석하여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그동안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평신도 운동의 큰 힘이 되어주실 것을 청하며 영육 간 건강을 기원하는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은 자리였다.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제1, 2차 상임위원회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서정권, 담당사제 우원주)는 제1차 3월 10일, 제2차 6월 9일에 상임위원회를 열고 제 단체 평협 체육대회, 교구설정 75주년 기념 평신도대회 세미나 개최의 건에 대해 토의했다. 한편 이날 올해에 새로 선임된 상임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도 있었다.

제 단체 평협 체육대회

광주평협은 4월 21일 교구 소속 단체의 100여 명 임원들이 모인 가운데 체육대회를 열었다. 이날 우천으로 아쉽게도 체육행사는 못했지만 미사봉헌과 단체별로 교구장님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푸짐한 음식 나눔으로 제 단체 간 친교를 다졌다.

여성을 위한 하루피정

광주대교구 여성위원회(위원장 고문희, 담당사제 우원주)는 5월 21일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본당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여성 4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루 피정 행사를 가졌다. 2012년 교구장 사목교서인 '가정의 해'의 뜻에 따라 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인 여성들을 위한 시간이었다. 이날 송영오 신부(수원교구 가정사목연구소장)는 '가정은 작은 교회'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는데, 가정 안에서 가족과 함께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의, 식, 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일상에서 간과하기 쉬운 보석 같은 얘기들을 재미나게 풀어주어 통쾌한 웃음과 함께 알찬 시간을 선물했다.

지구 소식

지구별 임원연수회, 체육대회 개최

광주평협은 지구별 사목협의회 임원연수회를 개최하여 2012년 교구장 사목교서인 '가정에서 시작하는 복음화'의 실행지침에 대해 사목국장 우원주 신부의 특강과 각 지구장 신부의 강의, 분과별 분임토의를 진행했다. 또한 지구별로 체육대회와 산행 등 다채로운 행사를 열어 친목과 결속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나주지구 연수회 : 3월 11일, 나주성당, 300여 명 참석

▶동부지구 한마음대회(산행) : 4월 15일, 분적산 등반, 250여 명 참석

▶서부지구 한마음잔치(체육대회) : 5월 20일, 화정초등학교, 300여 명 참석

▶순천지구 체육대회 : 5월 28일, 순천 삼산중학교, 300여 명 참석

▶광산지구 한마음축제(체육대회) : 5월 28일, 영광 스포디움, 460여 명 참석

▲동부지구 한마음대회(산행)

▲서부지구 한마음잔치(체육대회)

단체 소식

의사회·간호사회 피정 및 정기총회

의사회(회장 양영철, 담당사제 박상선)와 간호사회(회장 윤영희, 담당사제 박상선)는 지난 3월 11일 명상의 집에서 4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해 피정을 했다. 이날 '변화'라는 주제로 오성균 신부의 특강과 영화 '신과 인간' DVD 시청이 있었다. 파견미사를 집전한 옥현진 보좌 주교는 의료인으로서 환자를 돌보면서 자신의 성화에도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며 성경을 실제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도 말씀해 주어 깊은 감동을 받았다.

예비신자 교리교사대회

예비신자교리교사회(회장 최영만, 담당사제 우원주 신부)는 4월 28일 회원 18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순천향농원에서 교리교사대회를 열었다. 기념미사와 레크리에이션, 지구 대항 족구대회를 함으로써 친목을 도모했다. 또한 5월 20일에는 남평 글라렛선교수도원에서 50여 명의 대표 교리교사들이 참여해 연수회를 갖고 지구별 교리교사회의 활성화와 교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성모성월 대피정

파티마의 세계사도직회(회장 김재중, 담당사제 조영대)는 5월 3일 임동 주교좌성당에서 '하느님과 나'라는 주제로 성모성월 대피정을 실시하였다. 이날 최영배 비오 신부 (대구대교구 들꽃마을)의 특강이 있었는데 관계 속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회복되어 진정한 행복을 얻는 비결을 배우고 주님 은총의 힘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2012년 춘계성령대회

성령쇄신봉사회(회장 박청광, 담당사제 정대영)는 5월 14일 염주동 성당에서 9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신자들의 영적 성장을 돕고자 '2012년 춘계성령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성령을 받아라'라는 주제로 한연흠 신부(수원교구 백암성당)가 유쾌한 특강을 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됐다.

ME 제16회 가족모임 한마당

ME(대표부부 김덕승·이상희, 담당사제 최상준)는 5월 19일 '기도하는 가정, 함께하는 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주제로 살레시오고등학교에서 광주대교구 내 여수, 목포, 순천, 광주 지구별 각 본당 소속 ME부부 250쌍과 교구 내 ME봉사 사제들이 참여해 제16회 가족모임 한마당 잔치를 열었다. 특히 옥현진 보좌주교는 기념미사 강론을 통해 참석한 ME 부부

들에게 가정의 해를 맞아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부부의 일치에 ME 부부의 역할이 요청되며, ME 부부로서 실천사항들을 이웃에 전파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념식과 미사에 이어 점심식사와 놀이한마당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 모두를 5개 그룹으로 편성해 포스트를 돌면서 게임과 체험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WWME 광주협의회 가족모임은 2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며, ME주말을 체험한 모든 부부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제 나눔과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공동체의 결속을 다진다. ME주말 관련 정보는 광주ME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쉽게 알 수 있다. (http://kjme.or.kr/)

의사회·간호사회 피정 및 정기총회

운전기사사도회(회장 최옥호, 담당사제 오재선)는 5월 23일 150여 명의 전 회원이 모인 가운데 평생교육원에서 창립 23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옥현진 보좌주교의 집전으로 기념미사를 봉헌하고 우수회원에 대한 시상식과 음식 나눔, 체육행사로 친교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사도회는 지난 5월 성심의 집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모시고 나들이를 다녀오는 등 소외된 이웃들을 정기적으로 찾아가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도보 성지 순례길 정비

순교자현양회(회장 서정권, 담당사제 우원주)는 5월 31일 교구 사목국과 합동으로 노안성당에서부터 영광성당까지의 성지 도보 순례길을 2차에 걸쳐 정비했다. 산길과 도로로 이어지는 32㎞에 이르는 순례길에 리본(천주교 광주대교구 도보 성지 순례)을 달고 갈림길에는 푯말을 세워 쉽게 순례길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순교자성월인 9월에는 교구장과 함께 노안에서 나주까지 도보 성지 순례를 할 계획이다.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제2기 사회교리학교 수료식

제주교구는 6월 4일 저녁 7시, 연동성당에서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문덕영, 담당사제 고병수) 주관으로 '제2기 사회교리학교 수료식'을 갖고 153명의 수료자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신자들이 사회문제를 신앙에 입각해 체계적으로 판단하고 활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난 2월 27일 개교한 사회교리학교에 177명이 등록해 153명이 수료했고 그중 78명이 개근상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소감 발표(서귀복자성당 조승훈 사무엘, 동광성당 고효숙 요셉피나), 미사, 수료식 순으로 진행됐다. 수료식 미사를 주례한 고병수 신부(복음화실장 겸 선교사목위원회 위원장)는 "세상 안에서 교회가 말하는 가르침이 진정 무엇인지를 신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시작했는데 1기를 진행할 때는 사회교리가 어떤 것인지 사제인 나 자신도 잘 몰라 얼떨떨 했었다"면서 "믿을 교리 못지않게 사회교리도 중요하므로 여기서 배운 내용을 잘 이해하여 다른 분들에게 올바로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1기 때는 297명이 입학하여 252명이 수료했다.

마리아사업회

손에 손잡고 형제를 향해' 2012<새인류의 하루>, "탈북 형제자매와 이주 노동자, 다문화 가정에 따뜻한 손길을"

새인류운동은 포콜라레운동의 일치의 정신을 사회 각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함으로써 인류를 하나의 가정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대중운동이다. 한국 새인류운동은 지난해 3월부터 <새인류 십계명>이라는 캠페인을 펼쳐왔고, 최근 그 명칭을 <새인류 신호등>으로 새롭게 바꾸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손에 손잡고 형제를 향해!'라는 주제로 지난 3월 11일 서울특별시 교육연수원에서 '2012 새인류의 하루'가 열렸다.

이번 하루 모임에서는 탈북 주민들과 이주노동자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현실이 새롭게 부각됐다. 이들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인식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새인류운동 한국본부가 마련한 이 행사에는 서울, 경기, 전주, 부산, 대전 등지에서 온 회원 380여 명이 참석했다.

각자가 속한 사회와 삶 속에서 '형제애'를 실현하는 회원들의 경험담과 구체적인 활동들이 소개되었으며, 특별 손님으로 초대된 몇몇 이주 노동자들의 경험담도 커다란 선물이었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탈북 난민 북송 반대' 서명도 받았는데 이 서명 운동은 500여 개 시민단체로 결성된 <탈북난민구출네트워크>가 추진하고 있다. 로마의 새인류운동 세계본부는 이날 행사에 앞서 새인류운동 한국본부(대표·임영진, 김미진)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탈북 주민 북송 반대 서명운동에 대해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아울러 이날 새인류운동 한국본부는 지난해 발표한 새인류 10계명('새인류 신호등'으로 개칭)에 이어 올해 중점 실천 목표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제시했다.

2012년 새인류 신호등 지키기

- 1day, TV stop
  대화로 가족과 하나 되기
- 물 절약, 기름 절약, 커피 절약
  걷고, 끄고, 줄이면 온난화 예방
- 우리는 한 형제
  차별을 차이로(탈북 주민, 이주 노동자,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랑 실천 캠페인)
- 자녀교육 올인 빨간등
  지나친 사교육 집중 현상의 폐해를 극복합시다
- 고령사회 준비 파란등
  이렇게 절약된 사교육비를 고령사회 준비를 위한 나눔의 비용으로 전환합시다.

젊은 세대에 초점 맞춘 끼아라 루빅 선종 4주기 행사

포콜라레 창설자 끼아라 루빅(1920~2008)의 선종 4주기를 맞이해 추모 행사가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남미, 북미, 오세아니아 등 세계 곳곳에서 열렸다.

올해 추모 행사는 특히 <끼아라와 새로운 세대>라는 주제에 따라 '젊은 세대들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와 관련해 포콜라레운동의 회장 엠마우스(마리아 보체)는 3월 11일 로마 카스텔간돌포에서 열린 추모 행사에서 "끼아라는 새 세대를 전적으로 신뢰했고 이 신뢰는 젊은 세대가 일치된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확신이었다"며 "일치된 세계야말로 우리와 함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느님의 꿈"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서울, 부산, 광주, 군산, 대구, 대전, 춘천 등 전국 각지에서 끼아라 루빅 선종 4주기 추모 미사 및 추모 행사가 있었고 총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경기 지역에서는 4주기 사흘 전인 3월 11일 서울 교육연수원에서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 행사가 열렸

다. 이날 추모 미사를 주례한 수원교구 원로사제 심영택 신부는 강론을 통해 “저는 1960년대 공의회 때 로마에 살면서 포콜라레운동을 알게 됐는데 당시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보다 삶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달았다”며 “끼아라 장례 미사 때 교황님께서 보내신 메시지처럼 새 복음화를 표현하는 거대한 영신적 가정을 태어나게 한 이 용기 있는 여성, 끼아라를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자”고 말했다.

<끼아라와 새로운 세대>라는 올해 추모 지향에 따라 이날 행사에서는 오는 8월 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리는 제10회 젠의 축제(Gen fest)의 준비 현황이 소개되기도 했다.

무료진료소 요셉의원에서 열린 <모자이크>두 번째 전시회

포콜라레운동 예술인들이 준비한 <모자이크 두 번째 이야기> 전시회가 지난 5월 2~18일 서울 영등포에 있는 무료진료소 요셉의원(원장 이문주 신부)에서 열렸다.

<가족>을 주제로 마련된 이번 전시회는 요셉의원을 찾은 환자들과 봉사자들에게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나눔의 문화, 주는 문화(culture of giving)’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화, 조각, 사진, 설치 미술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 16명은 가족이라는 주제로 연 이번 전시회에서 선보인 작품 20여 점을 통해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을 끌어냄으로써 하느님을 찬미하고 가정의 온기를 전하고자 했다. 예술인들은 개막에 앞서 병원 환경 정리를 함께 하기도 했다.

2005년 포콜라레 예술인 축제 <하느님-美>를 개최한 이후 지난해 5월 결성된 ‘모자이크’는 당시 서울 명동 바오로딸 서원에서 ‘가족’이라는 주제로 제1회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한국가톨릭 간호사협회

배티순교성지 순례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회장 채계순 수녀)는 2012년 4월 29일 일요일, 협회 임원 및 자문위원단 23명(중앙이사·감사 15명, 자문위원단 6명, 그 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충북 진천군 백곡면 양백리에 있는 배티순교성지를 순례했다. 아침 서울성모병원을 출발하여 배티성지에 도착한 순례단은 <십자가의 길>을 바치고 성모님 앞에서 <단체사진>을 찍은 후, 새로 지은 성당에서 김웅렬 신부님 집전으로 미사를 봉헌했다.

김 신부의 맛깔스런 강론과 성지의 얽힌 얘기에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 배티 순교성지 내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바로 이어 <제2차 중앙이사회>를 하는 동안 자문위원단은 성지를 순례했다. 양업전시관, 양업교회사연구소, 옛 신학교와 성당 터 등을 둘러봤다. 좋은 날씨에다 알찬 시간이었다.

제3차 간호영성포럼 개최

2012년 6월 9일 토요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의과학연구원 1002호에서 전국 8개 교구 가톨릭간호사 회원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간호영성 포럼이 개최됐다.

아름다운 영상기도로 시작해 ▲아름다운 치유의 소명(이향만 교수) ▲치유의 웃음(성동효 강사), ▲치유하시는 하느님(최혜영 수녀)의 강의가 이어졌다.

이향만 교수는 강의에서 “인간의 직업 가운데 가장 성스러

운 직업은 성직자와 교사와 의사라고 한다. 현대인의 생활 방식에 따르면 탄생에서 죽음까지 간호사가 함께하고 있다. 간호사는 태어나는 아기에게 가장 먼저 축복하고,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 명복을 빌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 치료가 의사의 몫이라면 치유는 간호사의 몫이다. 치료는 행위에서 시작되나 치유는 말에서 시작된다"고 강의했다. 또한 최혜영 수녀는 "영성은 '자신이 타인과 자연, 그리고 신성한 힘과 맺고 있는 관계', '주님이 늘 곁에 계심을 느끼고, 그분의 눈길을 의식하고 함께 사는 것'. 남녀를 막론하고 사람은 누구나 영성을 가졌으며 진정한 그리스도교 영성은 '지금 여기'를 놓치지 않고 늘 깨어 사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임상에서 근무하며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병원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며 어떻게 환자들을 간호해야 할지 목표의식을 다지는 시간이 됐다. 아울러 간호직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었으며, 간호사로서 소명과 직업 의식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한국가톨릭 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

총회 및 전국 회장단 피정

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회장 윤재송)는 2012년 3월 7일(수)~8일(목) 서울 한남동 꼰벤뚜알 피정의 집에서 제29차 정기총회와 함께 회장단 피정을 했다. 이 행사에는 각 교구 시각장애인선교회 회장단과 직원, 봉사자 35명이 참석했다.

8일에 있었던 총회에서는 2011년 사업 보고 및 결산 승인, 201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절차를 밟았다. 또한 이틀 동안 피정은 미사와 강의, 찬양, 체험활동을 통해 각 선교회를 이끌어가는 회장단의 영성이 보다 깊어지고 하느님의 사랑 안에 하나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점자 '성경' 등 추가 보급

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는 2012년 시각장애인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하여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이하 '주교회의')의 지원을 받아 점자 '성경' '가톨릭기도서' '가톨릭성가' '예비자교리서'를 추가로 제작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위 서적들은 협의회가 2006년부터 매년 주교회의의 지원을 받아 발행해 온 것들로, 아직 받지 못한 신자들과 새 신자들을 위하여 추가로 제작하는 것이다.

시각장애인 신자들은 이를 통해 미사 전례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견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며, 하느님을 알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은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전국 시각장애인 레지오 마리애 피정

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는 2012년 5월 9일(수)~10일(목) 대전교구 시각장애인선교회 주관으로 충남 연기군 정하상교육회관에서 전국 시각장애인 레지오 마리애 피정 행사를 가졌다. 이는 각 교구 시각장애인선교회 레지오 단원들의 성화를 위하여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이번 행사에는 전국에서 시각장애인과 봉사자 150명이 참석했다.

첫 날은 레지오 회합과 강의, 찬양 등을 통해 성모님의 군대로서 자신을 무장하는 시간을 가졌고, 둘째 날은 한국평협이 주관하는 '하느님의 종' 순교자와 증거자 125위 시복시성을 위한 기도운동에 동참하는 뜻으로 솔뫼성지를 방문해 미사와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쳤다.

이번 피정을 통해 레지오 단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복음전파의 사명을 더 잘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가톨릭 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전국 성령 1일 대피정

'나는 믿나이다'라는 대주제로 한국가톨릭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회장 박효철 신부)가 주관한 성령 대피정이 꽃동네에서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성공리에 개최됐다.

전국협의회 회장인 박효철 신부는 전야미사 강론을 통해 그동안 대피정을 위해 여러 차례 모여 찬양과 율동을 준비해 온 봉사자들과 임원진의 수고를 치하하면서 "'다름과 틀림을 분별할 줄 아는 데서부터 하느님의 일치가 임한다'는 것"을 강조하셨다. 박 신부는 "바벨탑 사건 이후 흩어졌던 사람들의 언어가 성령 강림날 다양성 안에서 하나로 어우러지게 하였던 것처럼 내일 이 자리에서도 성령강림의 대축제가 재현될 수 있는 아름다운 잔칫날이 될 수 있도록 설레는 마음으로 작은 희생과 기도로 임해 달라"고 덧붙였다.

6일 대피정 날에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연합 율동팀과 연합 찬양단의 찬양으로 모두가 한데 어우러지며 포문을 뜨겁게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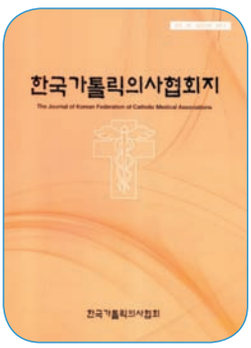
이어 두봉 주교님께서 '주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 주셨는데, "'주님의 손길'이란 곧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으로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 심지어 죽을때 조차도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고 가장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신앙은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커지는 것이기에 일상생활 속의 깨달음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오웅진 신부은 "예수님께서 영적, 인적, 물적 축복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 아버지와 하나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며, 우리 역시 성령을 받게 되면 가족과 이웃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까지도 함께하는 속죄의 재물이 될 수 있게 된다"면서 "'성령 받음'이란 곧 예수님처럼 벗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것이며 십자가를 지는 대속의 삶"이라고 강조했다.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된 대피정은 이어지는 윤영수 회장이 이끈 기도회와 각 교구의 성령쇄신 지도 신부님 7명이 함께 집전한 미사, 각 교구 회장과 임원들이 함께한 안수를 통해 그 옛날 성령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성령강림대축일을 앞둔 부활시기에 함께 마음을 모아 드리는 기도 속에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느님의 충만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다.

한국가톨릭 의사협회

한국가톨릭의사협회지(vol.34) 발행



예년의 틀을 벗고 새 단장을 한 한국가톨릭의사협회지 34호가 제작되어 전국의 회원들에게 배부되었다. 1년에 1회 발행되는 가톨릭의사협회지는 전국교구 가톨릭의사들의 진솔한 얘기들이 담겨 있다.

제44차 정기총회 및 피정 실시

한국가톨릭의사협회(회장 조건현 교수)가 주최하고 부산교구 가톨릭의사회(회장 김호균 메리놀병원 병원장)가 주관한 제44차 정기총회 및 피정이 지난 3월 24일(토)~25일(일),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 '성 분도 은혜의 집' 에서 개최됐다.

8개 교구에서 총 116명(서울 15명, 대구 10명, 광주 2명, 대전 8명, 부산 54명, 청주 8명, 인천 13명, 수원 6명)이 참석했으며, 한국가톨릭의사협회 담당사제 이동익 신부와 부산교구 가톨릭의사회 지도신부 노영찬 신부의 공동 집전으로 개회 미사가 있었으며, 부산교구 손삼석 보좌 주교의 '어제의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의 그리스도인'을 주제로 한 피정 강의, 그리고 친교의 밤에서의 교구별로 마련한 즐거움과 웃음 및 민정식 형제의 명사회, 희미하게 밝아오는 새벽 찬바람 속에 걷던 '십자가의 길', 부산교구장 황철수 주교의 집전으로 감사의 파견미사까지, 모든 것이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정기총회에서는 2011년도 사업보고와 2012년도 사업계획이 발표됐으며, 토의사항으로 한국가톨릭의료협회에 대한 현행 분담금을 올릴 필요가 있음(대구 박정환) ▲협회 재정의 확충을 위해 각 교구 가톨릭의사회의 분담금의 인상을 고려해야 함(서울 강준기) ▲참석하지 못하는 교구 가톨릭의사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총회·피정을 각 지역 교구 가톨릭의사회에서 시행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아시아가톨릭의사협회(AFCMA) 총회 및 학술대회가 2012년 10월 18~21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다는 것도 공지됐다.

항상 부활 2주 전 사순 시기에 실시되는 총회 및 피정은 2013년에는 인천교구 가톨릭의사회가 주관한다.

레지오 마리애 광주 세나뚜스

기사1단계 교육

광주 중재자이신 마리아 세나뚜스(단장 김남철, 담당사제 김종대)는 3월 3~4일, 17~18일에 1차와 2차로 나누어 광주 명상의 집에서 기사1단계 교육을 하였다.

이영헌(마리오) 신부의 개회미사에 이어 '성경으로 보는 신앙생활'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통해 바오로 사도의 삶과 복음 선포의 중요성과 함께 하느님과의 관계된 삶을 살아갈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알았다. 이어 '관리와 운영 및 쁘

레시디움의 주회합'에 대해서 고재태(알베르토), 정경식(대건안드레아) 교육위원이 1차, 2차 나누어 강의하였다. 둘째날은 '기사도 정신'에 대해서 Se.부단장이 강의했으며. Se.담당사제인 김종대(안드레아) 신부가 '간부의 사명'을 주제로 교회 봉사자로서의 레지오 간부가 갖추어야 할 덕행, 역할과 자세에 대해 강의했다. 마침기도에 이어 파견미사로 200여 명의 단원이 1, 2차로 나누어 기사1단계 교육을 수료했다.

기사2단계 교육

광주 중재자이신 마리아 세나뚜스는 4월 14~15일, 6월 2~3일에 1차와 2차로 나누어 광주 명상의 집에서 기사2단계 교육을 했다.

이영헌(마리오)신부가 개회미사에 이어 '바오로의 선교활동과 신학사상'이라는 주제 강의를 했으며 '레지오 사도직'에 대해서 김영대(루도비코) 교육위원이 강의했다. 둘째날은 '활동 사례와 방법 및 관리와 운영'에 대해서 정경식(대건안드레아), 이경호(마르티노) 교육위원이 1차, 2차로 나누어 강의했으며 세나뚜스 담당사제인 김종대(안드레아) 신부의 '레지오의 정신과 의무' 라는 주제의 강의를 통해 "성모님의 정신은 '하느님께 대한 순명'과 '끝까지 감싸고 사랑하는 모성애'라고 간추릴 수 있다. 이로써 레지오 마리애도 하느님께 대한 순명과 모든 이를 감싸는 모성애를 가질 때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마침기도에 이어 파견미사를 끝으로 170여 명의 단원이 1차, 2차에 나누어 기사2단계 교육을 수료했다.

올바른 성모신심

광주 중재자이신 마리아 세나뚜스는 4월 17일~ 5월 8일, 매주 화요일 4주간에 걸쳐 염주동 성당에서 최창무(안드레아) 대주교님을 강사로 모시고 올바른 성모신심에 대한 교육을 했다.

오해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가톨릭 신자들의 잘못된 성모신심 행위를 바로잡고, 성모 공경의 역사와 교의를 통하여 그 정당성을 밝혀 올바른 성모 공경을 제시하여 성숙된 신앙인으로서 개인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레지오 단원을 양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9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견미사로 올바른 성모신심에 대한 4주간 교육을 마쳤다.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동아시아 그룹 회의 주제: 희망의 씨앗 뿌리기

2012년 5월 24~27일(3박4일 일정), 필리핀 세부섬에 있는 시티파크호텔에서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베트남 홍콩 일본 대한민국 대만 마카오에서 온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희망의 씨앗 뿌리기'란 주제로 그룹회의를 개최했다. 한국을 대표해 정해정(요셉) 빈첸시오 한국 회장을 비롯하여 청년대표(성은주 데레사), 청년총무(김의성 올리바), 빈파즈 아시아대표 강일구(안드레아) 등 4명이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서로 다른 맥락과 수용 능력을 인식하여 각 회원 국가는 앞으로 3년 동안 2012

년 동아시아 그룹 대회선언에 걸맞은 확실한 활동 분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데 서명하고 돌아왔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토의 주제를 제1~4과로 나누어 발표회가 있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과제1 – Hunger and Poverty Alleviation (기아 및 빈곤의 완화)

• 과제2 – Overseas Ministry to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이주근로자 및 그 가족들을 위한 해외 사목)

• 과제3 – Primary Education (초등교육)

• 과제4 –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with Disaster Response(자연재난 구호와 환경유지)

이 과제에 대한 핵심내용인 대회 선언문을 통해 빈첸시오를 다시 한번 알리고자 한다.

대회선언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신앙을 강화하고, 새로운 변화를 통해 변화되고, 사회적 현실에 깨어 있어서 우리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동아시아 그룹 대표단은 우리 자신을 빈곤의 감소와 기아의 경감, 해외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존엄성의 향상과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보균자와 환자들의 치유, 초등교육 진입의 확실성, 지속 가능한 환경 보호에 대하여 새롭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헌신할 것을 서약합니다.

동정

서울평협 이인석 감사 자녀 혼배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이인석 감사의 자녀 혼배 미사가 지난 5월 26일 토요일 서강대학교 이냐시오 성당에서 있었다.

안동평협 회장 안동의료원 원장 취임

안동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이한양 회장이 지난 6월 29일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원장에 임명됐다.

✔바로잡습니다

평협소식 36호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의 기사 중 제42차 정기총회와 복음화시상식 기사 중 교구장 이름을 이용훈 주교에서 안명옥 주교로 바로잡습니다.

✱ '평협소식' 개편 안내

2006년부터 격월로 발간되었던 '평협소식'이 다음 호인 제38호부터 판형과 내용을 바꾸어 계간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교회 내외의 주요 소식들과 평신도 사도직 활동, 평신도 신학 등 폭넓은 주제의 평신도 관련 정보를 전달하게 될 새로운 '평협소식'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대주교 착좌식 축사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여 나는 목숨을 다시 얻는다"(요한 10,17).

오늘 거룩한 미사에서 들은 요한복음서의 이 말씀은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놓기까지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의 길'을 제시하신 내용입니다. 목자는 자기 양들을 알고 양들은 자기 목자를 알아보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경사가 났습니다. 염수정 안드레아 대주교님을 이곳 지역교회에 목자로 보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동시에 대주교님의 서울대교구장 착좌를 온 마음 다해 경축(慶祝)합니다.

정진석 추기경님과 교황대사 오스발도 파딜랴 대주교님, 제위 주교님, 신부님들, 이웃종교 성직자와 그리스도교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내빈, 수도자, 교구 교우, 전국 여러 지역에서 서울교구 행사를 위해 오신 교우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느님의 선택은 참으로 오묘한 것이어서, 5대조 할아버지로부터 이어온 신앙인 파주 염(廉)씨 가문의 190년 역사를 통해 순교자 부부가 나게 하시고, 그 6세손인 안드레아 대주교님 대(代)에 와서 3형제 사제가 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교회는 북경까지 다녀온 평신도가 먼저 시작해 사제를 영입하고 성사생활을 영위했으나, 모진 박해의 소용돌이 속에서 비로소 제대로 교회 모습을 갖춘 것은 조선대목구가 설정되고, 두 번째 감목인 앵베르 범 라우렌시오 주교 성인이 입국하고서부터였습니다. 세계 교회를 일컫는 보편교회에 교황님이 계시듯이 서울과 같은 지역교회에는 주교님이 계셔야만 교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느님 백성들에게 주교님은 그만큼 중요한 중심이십니다.

서울대목구가 곧 조선교회였던 시대가 있었고, 브뤼기에르 소 바르톨로메오 초대 감목 이래 앵베르, 베르뇌, 다블뤼 주교 등 세 분 성인 순교자와 노 바오로 대주교와 김 스테파노, 정 니콜라오 두 분 추기경 등 열세 분 전임 교구장님들이 굳건히 다져놓으신 전통 위에 오늘 염 대주교님께서 그 열네 번째 '본주교'의 자리에 정좌하셨습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하느님의 축복이요 은총이며, 다시 한 번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더불어 경하해 마지 않습니다.

무릇 인간사, 세상사가 그렇듯이 기쁨과 환호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의 수장으로서 헤쳐나가실 일이 산적해 있고, 무엇보다 교회의 사명인 복음화 사업이 여러 모양으로 걸림돌을 안고 있어서 종전 방식이 아닌 새로운 복음화를 급선무로 하는 시대적 요청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속주의에 물든 지체들의 상처를 도려내면서 반생명적인 사회 현상에 대처하고 사회교리를 포함한 '가톨릭교회 교리'를 제대로 알리고 실천하게 하면서 '신앙의 해'를 준비하는 일도 시급합니다.

이 많고도 중차대한 일을 해내시는 동안, 더러는 활로가 막히고 소통이 부재한 듯, 답답하고 울고 싶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순교자의 하소연처럼 "대저 누가 우리의 처지를 위로해주겠습니까?"하고 울부짖고 싶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오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주교님,

교회의 어머니이요,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께서 계십니다.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 성녀들이 주교님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있습니다. 대주교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백성들이 주교님을 에워싸고 주교님을 위해 열심히 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으로 현세 질서를 복음화하며,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성인 주교 되시게 해주십사"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사제와 평신도는 교회를 움직이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한쪽 바퀴가 고장 나면 그 수레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제와 평신도들이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주교님께서 앞장서서 친교의 교회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교님께서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의 책임을 맡으신 이래 노심초사 전력투구해 오신 평신도사도직의 활성화에도 큰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주교님께서 평양교구 책임도 맡으시고, 서울대교구의 관할권이 황해도까지 포함된다는 면에서 볼 때, 우리는 통일을 위한 민족화해의 몸짓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고통과 시련 속에 있는 북녘의 형제자매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념의 푯대 끝에 일렁이는 한시적인 현상을 극복하고,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생명과 사랑과 진리와 평화의 나라 만들기에 모두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교님께서 품어 안아 주십시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묵시록 22,20).

2012년 6월 25일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 최홍준 파비아노

정진석 추기경님을 위한 송별사

"희망을 안고 하느님께"(히브 7,19)로 저희 교구민을 이끌어주고자 하신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님.
교구 시노드를 여시고 '복음화 2020운동'을 주도하시면서 생명운동에 앞장서 오신 추기경님.

초등학교 4학년 '보미사'(補 misa, 요즘의 복사)를 서실 때부터 키워온 '사제의 꿈'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입학하고 전쟁을 겪으신 다음에야, 홀어머니께 말씀드리셨다지요?
"어머니, 저 신학교에 갈까 봐요."
어렵게, 어렵게 운을 떼자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시던 어머니께서 이윽고,
"그럼, 가거라."
듣는 쪽의 귀를 의심할 정도로 어머님의 허락이 떨어지자,
"내가 신학교에 가면, 어머닌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장차 누구랑 사시려고 그러세요?"
하고 물으셨다지요?
그 순간 어머님은
"하느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 한마디가 대답의 전부였습니다.

평협회장 단상

그러구러 사제수업을 받으시고, 동창 신부님들보다 높은 연세에 사제직에 오르신 추기경님은 지난해 3월 18일 바로 이곳 명동대성당에서 사제수품 50주년 금경축 미사를 봉헌하시고 축하를 받으셨습니다.

그동안 유학을 다녀오시고 주교로 승품되시고 어머님을 가까이서 모실 수 있으셨던 것 역시 하느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서였고, 청주교구와 서울대교구에다 평양교구까지 3개 교구에 걸쳐 수장을 역임하시고, 그 위에 붉은 수단의 '홍의주교'(紅衣主敎)로 추기경에 서임되신 것 또한 하느님의 뜻이었음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 니콜라오 추기경님.

제한 받은 이 시간에 추기경님의 사랑과 발자취를 어찌 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필설로써 다할 수 없는 추기경님의 거룩한 여정에 저희는 다만 기도 안에서 하나되는 '통공'의 의미를 곱씹을 따름입니다.

언젠가 추기경님께서 전임 교구장 추기경님의 생애를 더듬으시던 끝에 '장엄한 낙조'라고 언급하신 대목이 아주 강한 인상으로 가슴에 남아있어, 이제 평생을 살아오신 이곳 명동을 떠나시는 시점에 저도 이 문학적인 표현을 빌려서 "추기경님이야말로 장엄한 낙조의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에게 남겨주셨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엄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십니다.

교회의 큰 어른이신 니콜라오 추기경님.

신임 교구장이신 염수정 안드레아 대주교님을 중심으로 성삼위(聖三位)의 일치를 본받아 저희 모두가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추기경님께 보답하는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혜화동 할아버지'로 지내시는 동안 저희 교우들이 종종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기도하겠습니다.

추기경님, 사랑합니다.

2012년 6월 15일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 최홍준 파비아노